

부산시와 함께하는 준법윤리경영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 개최 결과

부산광역시와 부산상공회의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2016년 9월 20일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준법·윤리경영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국민권익위원회 및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Siemens Integrity Initiative)가 후원하고 (사)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이 주관하는 본 세미나는 반부패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프로젝트인 '페어플레이어클럽 (Fair Player Club)'의 2차년도 두 번째 세미나로, 부산시 공기업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준법·윤리경영의 국내외 동향과 반부패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소개하고, 반부패 기업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페어플레이어클럽 2차년도 첫 번째 세미나는 서울시와 함께 2016년 7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성공적으로 공동 주최한 바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정경진 부시장은 개회사에서 "부산 기업들의 준법·윤리경영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위해 마련한 자리이니만큼 여러 정보를 교류하여 기업의 글로벌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히며 부산시 소재 기업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 이갑준 상근부회장은 환영사에서 "이제 김영란법 도입 시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시기에 본 세미나가 기업에게 큰 보탬이 되고 경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행사의 의의를 강조하였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임홍재 사무총장은 "준법·윤리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대한민국의 깨끗하고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데 페어플레이어클럽이 중요한 플랫폼이 되길 바란다"고 행사의 중요성을 말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및 반부패 국제동향 발표에서 OECD 뇌물방지협약, 유엔 반부패 협약, 영국 뇌물수수법과 같은 주요 반부패 국제법 및 협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국제 이일권 변호사의 청탁금지법 소개 및 국내기업 대응방안 발표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제정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적용대상 및 금지행위, 예외규정 등 법률 상세 내용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양벌규정에 따라 위법행위 책임은 개인 및 기업에게도 부과될 수 있어, 기업의 반부패 프로그램 이행 및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부산광역시 유재기 서기관은 공기업의 청렴윤리경영 발표에서 부산광역시의 청렴도 개선 변화를 보여주며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최우수(1등급), '종합청렴도'가 매우 미흡(5등급 16위)에서 최우수(1등급 2위)로 오른 사례를 들어 이제 21세기는 청렴윤리시대이기에 모든 공직자는 상식을 지키는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박정호 선임연구원의 부패리스크와 기회, 기업 대응(국제상공회의소 ICC 활동 소개) 발표에서는 반부패에 대한 ICC의 기초와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ISO26000의 공정운영관행, OECD 다국적 가이드라인의 뇌물공여, 뇌물청탁 및 강요의 방지, GRI G4 57-59 지표의 윤리성 및 청렴성 내용을 설명하며 반부패가 규제에서 문화로 바뀌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은경 팀장은 글로벌 반부패 가이드라인 및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소개 발표에서 주요 국제법 및 협약뿐만 아니라 국내 청탁금지법과 같이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준법·윤리경영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기업이 사전에 리스크 평가를 통해 부패 위험을 예방하고, 반부패 프로그램을 전사적으로 수립 및 이행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태광실업 이정현 이사는 준법윤리경영의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기업 사례 발표를 통해 태광실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인식, 윤리경영 로드맵, 윤리경영 소통활동, 무관용 원칙, 지속가능경영팀 및 1차 협력사 컴플라이언스 연구위원회 활동, 지속경영보고서 제작 등 태광실업의 적극적인 준법·윤리경영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사)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강주현 상임대표는 페어플레이어클럽을 소개하고 반부패 서약을 안내하면서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페어 플레이 반부패 서약을 통한 기업 문화 개선의 가능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 조

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 동종기업은 물론 이종 업종 기업들간에도 공동노력 (Collective Action)이 필요함을 역설하였습니다.

페어플레이어클럽은 앞으로도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울산, 대전 인천 등의 광역 자치단체와 지역상공회의소와의 민관협력 증진을 통해서, 전국 주요 도시에 위치한 기업 대상으로 반부패와 준법·윤리경영 중요성을 전파하여 기업의 부패 리스크 방지와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